

# 개혁개방이래 중국내 ‘중국학’연구 네트워크의 역사적 형성과 함의

최은진(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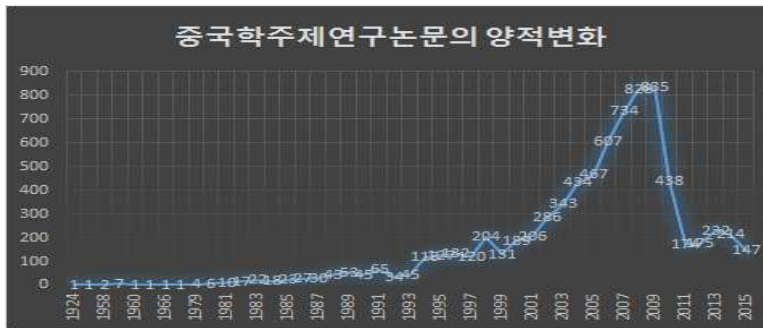
서구에서 발전된 중국학은 중국에 대한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그 역사도 길고 성과도 상당하지만 연구자가 처한 지적배경과 공간의 제한적 환경 등은 중국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서구의 지적생산물에 대해 중국의 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였는가. 이를 살펴보면 서구의 한학(漢學sinology)의 발생과 그 궤적을 따라 이를 이해하고 중화민국 이전부터 이를 수용한 흐름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서구와 중국의 학문교류가 단절되면서 형성된 서구의 중국학의 성과에 대해 개혁개방이후 교류가 다시 재개되며 중국내의 지식인과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를 수용하였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중국학의 개념, 외국의 중국학에 대한 소개, 서구의 중국학이 지니는 시각과 방법의 문제 등을 지적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며 중국내 중국학 연구에 대한 소개는 단편적 데에 그치고 있다.<sup>1)</sup> 이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의 중국학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배경이나 그것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의 확산 등에 대한 연구도 있지만 중국학이 단순히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입장으로 존재한다는 연구도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우는 중국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기구와 체제를 통해 어떻게 지식을 생산해 나가고 있는가. 중국내의 중국학에 대한 지형과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또한 구조적인 맥락에서 분석하면서 중국의 서구에 대한 인식이라는 큰 지적교류의 일부분을 그려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CNKI에서 중국중국학이라는 주제로 찾아 다소 범위를 좁혀 본 뒤 중복된 성과를 제거하고 정리한 결과 313개의 학위논문, 일반논문, 신문매체에 실린 글을 주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나타난 중국학 연구의 주요한 경향성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이러한 연구성과들이 주는 주요한 정보인 저자와 저자의 소속, 연도, 매체명, 주제어 등을 주요한 분석 요소로 삼아 SNA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연구자들의 중국학에 대한 인식을 구조적으로 고찰해 보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의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문헌분석을 병용해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된 역사적 인식론적 배경과 형성과정을 고찰하여 중국의 중국학 연구의 구조와 네트워크가 지니는 지적교류의 함의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 II.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중국학 연구 지형

1) 崔玉军, 「80年代以来大陆的国外中国学研究:历史与展望」, 『国际关系学院学报』, 2006年03期; 吴原元, 改革开放以来中国的海外中国学研究, 国际社会科学杂志(中文版), 2009年02期; 朱政惠, 近30年来中国学者的海外中国学研究:收获和思考, 江西社会科学, 2010年04期; 何一民, 海外“中国学”与中国“中国学”, 四川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1年01期; 徐浩然, 国内外学者对西方中国学的研究述评, 中共杭州市委党校学报, 2012年04期; 杨起予, “中国学”发展的历史逻辑及前景分析, 海内外中国学研究的现状与分析 改革与开放, 2014年17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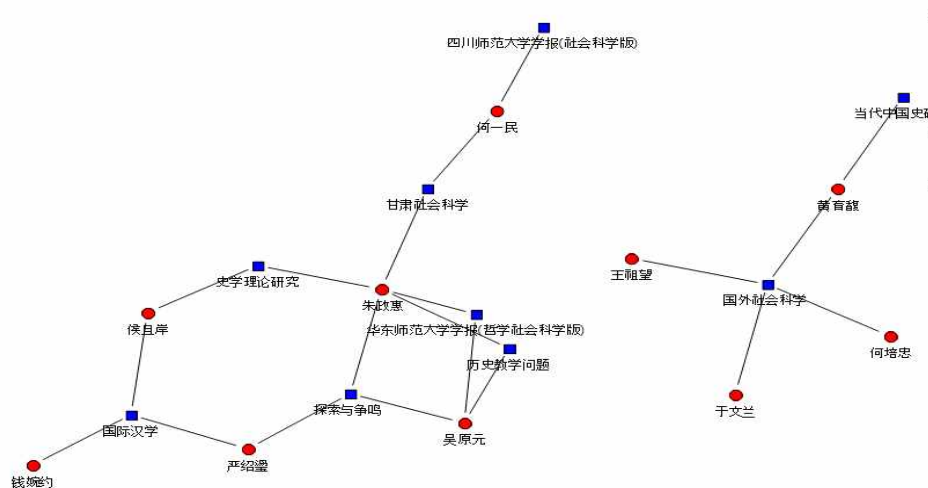


출처: CNKI주제로 검색

중국어학 연구는 CNKI에서 주제어로 검색하였을 때 개혁개방이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민국시기 후스나 차이위안페이에 의해 약간 이루어졌으나 증가추세는 2000년 이후 급증했고 특히 2008년을 정점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주도한 그룹을 살펴보면 북경 상해를 중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정보와 동향소개에서 점차 학술연구로의 발전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

<그림1 잡지를 통해 본 저자 네트워크>



## 1. 중국사회과학원 국외중국어학 중심 연구

이러한 흐름의 시작은 중국사회과학원의 전신 중국과학철학사회과학부의 정보연구소에서 비롯된다. 1957년 성립되어 외국의 인문사회과학연구의 최신 동향을 수집하고 연구했던 기관이었다. 문화대혁명기간 연구원들이 하남의 57간부학교에 하방되었다가 1972년 베이징으로 돌아오면서 연구가 재개되었다. 1976년 중국사회과학원 정보연구소에 국내 제 1의 해외중국어학 연구기구인 국외중국어학연구실이 생겨났다. 2)

1977년 중국과학원에서 철학사회과학부가 독립되고 중국사회과학원은 그 내에 정보연구소를 두었으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이 내에 국외중국어학연구학과가 설립되었다. 개혁개방후 국외

2) 何培忠, “国外中国学研究”学科创立初期回顾, 国外社会科学, 2013年04期

의 연구동향과 연구기관의 소개를 하게 되고 그 내에 구미, 소련동구,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국외중국학의 4개의 연구실을 두고 국외중국학 연구실에서 외국동향에 대해 1977년부터 <국외중국연구>를 통해 소개했다. 처음부터 미국의 기구와 학술계의 연구인력과 학술의 동태 및 출판 등을 해왔다. 1981년 <미국중국학수책>을 비롯해서 외국의 중국학학자들에 대한 인명록 등을 발간해서 초기부터 해외중국연구를 선도해 왔다. 이 기구는 孙越生과 何培忠이 주도해 왔으며 세계40여개국 천여개 이상의 중국연구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중국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상해의 세계중국학논단 개최에도 관여했다.<sup>3)</sup>

2004년 중국사회과학원 국외중국학연구중심이 성립되었다.<sup>4)</sup>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신식중심의 崔玉军은 개혁개방이래 중국자체의 발전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국외의 중국학에 대해서도 정리했다.<sup>5)</sup> 미국의 중국학연구에서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연구방법 등을 수용할 필요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sup>6)</sup>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정보신식에서 발간하는 『国外社会科学』 잡지를 통해 王祖望과 孙越生 등이 서구의 중국학에 대한 소개를 주로 하였다. 왕조망은 스위스의 중국학연구상황에서는 1947년 이래 언어와 역사 및 철학의 인문학 중심의 학과로 시작된 역사를 소개했고 이외 독일 대학의 분산적이고 다원적인 중국학 연구 기구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독일은 다른 유럽의 국가보다 역사적으로는 늦게 중국학이 시작되었다.<sup>7)</sup> 스웨덴에 대한 연구 및 명청대의 선교사의 도래를 소개했다.<sup>8)</sup> 프랑스의 중국학의 18세기이래의 전통을 소개하고 영국의 17세기 이래의 중국학연구의 개황이 이루어지지만 영국의 중국학은 프랑스와 미국에 비교하면 발전한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sup>9)</sup> 프랑스에 대해서는 한학뿐 아니라 현대중국에 대한 1950년대 말 이래의 연구와 학술기구에 대해서도 소개되었다.<sup>10)</sup>

1991년 영국의 중국학 학자들과 교류도 이루어졌고 런던대학의 아시아아프리카 학원 내의 중국학 연구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졌으며 영국 역시 한학에서 연구영역이 확장된 실태에 대해 소개하였다. 케임브리지대학의 중국학 연구의 개황 소개와 옥스퍼드대학 소개도 이루어졌다.<sup>11)</sup>

3) 黄凯锋, 和衷共济——中国与世界的共存之道——第三届世界中国学论坛海外学者观点评述, 社会科学, 2009年02期

4) 欣文, 中国社会科学院国外中国学研究中心成立大会纪要, 国外社会科学, 2004年03期; 汝信, 开拓进取, 促进国外中国学研究的的发展, 国外社会科学, 2004年03期; 李慎明, 努力加强国外中国学研究, 国外社会科学, 2004年03期

5) 崔玉军, 80年代以来大陆的国外中国学研究:历史与展望, 国际关系学院学报, 2006年03期; 崔玉军, 国外中国学的性质及意义略论, 社会科学管理与评论, 2008年04期

6) 李凌翔, 现实关怀与真相诉求:美国中国学研究的启示, 山东社会科学, 2004年08期

7) 刘萍, 二次大战前的德国中国学, 中国典籍与文化, 1992年02期; 江树革; 安晓波, 德国中国学研究的当代转型和未来发展趋向, 国外社会科学, 2012年02期

8) 萧俊明, 北欧中国学追述(上), 国外社会科学, 2005年05期; 萧俊明, 北欧中国学追述, 当代中国史研究, 2006年01期

9) 近藤一成; 胡健, 英国中国学研究现状, 国外社会科学, 1992年05期

10) 夏旭东; 杨保筠, 法国当代的中国学研究, 国外社会科学, 1990年11期; 严绍(汤玉), 欧洲“中国学”的形成与早期理性主义中国观——中国文化的历史世界意义性的研讨, 北京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1990年05期; 严武, 二战以来法兰西学院的中国学研究, 中国史研究动态, 1995年03期; 郭丽娜, 法国巴黎外方传教会的中国学研究及其影响, 汕头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10年04期

11) 程真, 英国的中国学研究和中文图书馆泛谈, 北京图书馆馆刊, 1993年 2期; 王红续, 伦敦亚非学院里的“中国学”, 国际社会与经济, 1994年06期; 王次澄, 伦敦大学亚非学院的传统中国学研究, 国外社会科学, 1994年02期; 张国刚(南开大学历史系), 剑桥大学中国学的历史与现状, 传统文化与现代化, 1995年03期; 杨国桢, 牛津大学中国学的变迁, 中国史研究动态, 1995年08期; 梁家敏, 20世纪前半叶英国的

손월생은 소련의 중국학을 역사적 배경과 양국관계의 측면에서 소개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중국학연구도 1993년이래 소개되었다.<sup>12)</sup>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와의 비교 연구도 지속되었다.<sup>13)</sup> 2005년 뉴질랜드의 중국학 연구도 소개되었다<sup>14)</sup>

소련의 1917년부터 40년대까지에 대한 소개<sup>15)</sup> 및 학과와 조직에 대한 소개<sup>16)</sup> 및 이탈리아의 중국제국시기의 연구에 대한 역사적인 소개<sup>17)</sup>가 이루어졌다 1992년, 1966년 건립된 소련의 과학원 원동연구소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고 학술적 성과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러시아의 중국학 연구기구에 대해서는 2000년 들어 진행되었다.<sup>18)</sup>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신식중심은 헝가리의 중국학, 일본의 연구소 방문과 일본지역연구(구역연구)의 특징을 소개했다.<sup>19)</sup> 깊은 학술적 연구라기 보다는 기구와 연구동향의 소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길림성과학기술대학의 白云飞도 소련의 중국학 연구를 개관했다.<sup>20)</sup>

왕조망을 중심으로 주로 유럽의 한학이 소개되었다. 1948년 창립된 유럽의 중국학 대회도 소개하는 등 초기에는 유럽 한학의 역사적 소개가 주를 이루었다.<sup>21)</sup> 유럽의 경우도 점차 한학의 전통이 약화되고 있으며 유럽내 연구기구간의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미국 중국학 연구에 대한 경쟁력을 지녀야 한다고 유럽내에서 주창되고 있다.

유럽과 함께 인도의 달리대학 중국학연구소의 중국학 연구도 1990년 국외사회과학을 통해 소개되었고 2000년에도 지속된다. 인도도 현대중국연구가 점차 증가했다.<sup>22)</sup>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비롯 싱가포르의 중국학연구 및 베트남, 스리랑카 연구도 이루어졌다.<sup>23)</sup> 한국의 중국학에 대

两个官方报告对英国中国学研究的推动和转向作用, 国外理论动态, 2009年08期

12) B.胡柏: 谢萌珍, 1991-1992年度上半年澳洲中国学研究报告, 国外社会科学, 1993年10期; 马克林: 刘明新, 澳大利亚的中国学研究, 世界民族, 1997年02期; 刘霓, 澳大利亚的中国学研究课题(2004), 国外社会科学, 2004年04期

13) 韦立德: 刘霓, 澳大利亚和英国的中国学比较, 国外社会科学, 2004年06期; 石之瑜: 陈姿洁, 南方的中国学?——从费约翰到澳洲特色的研究议程, 开放时代, 2009年06期; 甘振军, 澳大利亚中国学研究的历史进程及其反思, 华北水利水电学院学报(社科版), 2012年06期

14) 杨雁斌, 南太平洋岛国的中国学研究——新西兰中国学研究概况, 国外社会科学, 2005年02期

15) 非文, 苏联中国学的发展, 晋图学刊, 1988年03期

16) 季塔连科: 郜红华, 苏联的中国学研究和革新, 现代外国哲学社会科学文摘, 1990年05期

17) 张雪慧, 意大利中国学研究之现状, 历史研究, 1989年06期

18) 段合珊, 苏联中国学研究中心——远东研究所, 国外社会科学, 1992年01期; Л.古多什尼科夫; Г.斯捷潘诺娃; 赵国琦, 苏联解体后的俄罗斯中国学, 国外社会科学, 1997年03期; 樊庄辑, 俄罗斯应向中国学学什么?, 时事(《时事报告》中学生版), 1999年03期; Л.М.古多什尼科夫; Г.А.斯捷潘诺娃; 赵国琦, 20世纪末的俄罗斯中国学, 国外社会科学, 2001年05期; 于文兰, 俄罗斯中国学研究机构——科学院系统, 国外社会科学, 2003年03期; 于文兰, 俄罗斯中国学研究机构——高校和图博系统, 国外社会科学, 2003年04期; 于文兰, 从成果统计看俄罗斯中国学研究的主要方向和特点, 国外社会科学, 2004年03期; 江宏伟; 任莉, 俄罗斯中国学的历史与现状——写于俄罗斯科学院远东所成立40周年之际, 国外社会科学, 2006年06期; 任莉; 廖其发, 20世纪俄苏中国学研究综述, 重庆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 2010年06期; 尚衍斌, 近年俄罗斯的中国学研究, 中国边疆民族研究, 2010年00期; 中国社会科学院出访团, 俄罗斯、乌兹别克斯坦、哈萨克斯坦的人文社会科学研究体制与中国学研究, 国外社会科学, 2012年02期; 孟长勇, 中亚五国“中国学”研究的历史和现状, 海外华文教育, 2013年04期(教育部长基金)

19) 何培忠, 匈牙利的中国学, 国外社会科学, 2003年06期; 何培忠, 日本中国学研究考察记(三)——访早稻田大学政治经济学部毛里和子教授, 国外社会科学, 2004年04期; 何培忠, 日本中国学研究考察记(四)——访爱知大学国际中国学研究中心加加美光行教授, 国外社会科学, 2004年06期

20) 白云飞, 苏联中国学发展述略, 西伯利亚研究, 2009年03期; 白云飞, 苏联中国学研究综述, 呼伦贝尔学院学报, 2009年04期

21) 柏思德, 欧洲中国学50年, 中国社会科学报, 2009年01期

22) 谢萌珍, 印度的中国学:概况和建议, 国外社会科学, 1990年04期; 郁龙余, 中国学在印度, 学术研究, 2000年01期; M.莫汉蒂; 山佳, 中国学研究:印度学者的观点, 国外社会科学, 2004年06期; B.坦克哈; 张燕晖, 印度的中国学研究:正在改变的范式, 国外社会科学, 2007年04期; 哈拉普拉萨德·雷易; 蔡晶, 印度的中国学研究概览, 深圳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10年06期

한 소개는 신승하, 민두기, 김준엽에 관한 소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24)</sup> 2004년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신식중심은 한국의 중국학 연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사회과학적 연구의 증가와 국제대학원과 연구소의 증가는 있으나 방법론은 미국의 방법에 치우쳐 있다고 소개했다. 2000년 이후에는 소개에서 나아가 연구도 진행했다.<sup>25)</sup> 아시아지역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다루는 것으로도 보인다.<sup>26)</sup>

초기부터 시작된 사회과학원의 해외중국학연구는 학술적 연구보다는 소개에 치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2. 상해 화동사범대학 중심의 학술연구

화동사범대학의 朱政惠는 1995년 해외중국학연구를 역사학 측면에서 검토했다.<sup>27)</sup> 주로 미국의 중국학에 대한 역사적 유래 및 프랑스의 한학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는 데 주력하고 하버드의 페어뱅크 센터를 방문하고 외국의 중국연구자들에 대한 연구 및 그들과의 실제적 교류도 진행했다. 페어뱅크의 제자 벤자민 슈워츠에 대한 연구로 페어뱅크로 시작된 중국학의 계보와 李區梵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소개했다.<sup>28)</sup> 2004년에는 《美国中国学史研究》를 저술했다.<sup>29)</sup> 이에 대해 상해지역의 역사학자들의 호응이 있었다.<sup>30)</sup> 그는 사회과학보에도 글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중국연구의 상황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31)</sup> 2006년 이래 해외 중국학연구의 이론과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sup>32)</sup> 吳原元은 미국의 중국학자의 활동을 연구하면서 미국의 60년대 이래 주류연구에

23) 清水茂; 君羊, 新加坡中国学现状, 国外社会科学, 1990年04期; 祁广谋, 中国学在越南, 东南亚纵横, 1999年01期; 梁俊兰, 新加坡的中国学研究, 国外社会科学, 2005年05期; 斯里兰卡的中国学研究, 国际汉学, 2010年01期

24) 骆驿, 一个新崛起的中国学研究——南朝鲜印象, 开放时代, 1991年06期; 辛胜夏, 韩国的中国学研究状况, 韩国研究论丛, 1995年00期; 谢俊美, 韩国中国学和闵斗基的中国史研究, 华东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1996年05期; 朴元熹, 金俊烨先生和韩国的中国学研究, 韩国学论文集, 1996年00期

25) 高永根; 吴莲姬, 韩国的中国学研究动向与课题, 国外社会科学, 2004年02期; 陈广宏, 韩国“汉学”向“中国学”转型之沉重一页——日据朝鲜时期京城帝国大学的“中国学”研究及其影响, 韩国研究论丛, 2005年00期; 郑成宏, 当代韩国的中国学研究现状与展望, 韩国研究论丛, 2005年00期; 康俊荣, 韩国的中国学研究趋势和展望, 学习与探索, 2012年01期

26) 欣文, “亚洲地区中国学研究述评”国际学术研讨会纪要, 国外社会科学, 2007年02期; 黄长著, 国外中国学与亚洲中国学, 国外社会科学, 2007年04期; 徐武林, 泰国的中国学研究, 国外社会科学, 2008年04期

27) 朱政惠, 日益受到关注的海外中国学研究——当代中国史学趋势研究之五, 华东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1995年06期; 朱政惠, 研究中国学, 心系中国学——法国学者巴斯蒂夫人来访记, 历史教学问题, 1997年02期; 朱政惠, 关于美国中国学家的总结和反思

28) 朱政惠, 美国中国学的由来和发展, 华东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1996年05期; 朱政惠, 求真、求实、求新——巴斯蒂Bastid教授的中国学研究成就及其特点, 学术研究, 2000年; 朱政惠, 裴宜理教授的中国学研究——哈佛大学费正清东亚研究中心主任访谈记, 史学理论研究, 2001年03期; 朱政惠, 史华慈的中国学研究, 历史教学问题, 2003年第1期; 朱政惠, 近30年来中国学者的海外中国学研究: 收获和思考, 江西社会科学, 2010年04期; 朱政惠, 史学理论与史学史研究的新思考——与海外中国学研究关系的讨论, 安徽史学, 2011年02期; 朱政惠, 美国学者对中国学研究的回顾与反思, 江海学刊, 2011年03期

29) 张广智, 探索无止境——读《美国中国学史研究》, 探索与争鸣, 2004年12期

30) 陈勇; 彭媛媛, 海外中国学研究的新收获——读《美国中国学史研究》, 史学理论研究, 2005年01期

31) 朱政惠, 美国主要的中国学研究机构, 社会科学报, 2006-07-27

32) 朱政惠, 关于史学史研究和海外中国学研究的若干问题, 探索与争鸣, 2007年01期; 朱政惠, 中国学者对海外中国学研究的百年回顾——进程、特点和若干问题的思考, 甘肃社会科学, 2013年05期

대한 비판적 흐름도 소개하고 중한관계의 확대에 따른 한국의 현재 중국연구의 비중에 대해서도 연구했다.<sup>33)</sup> 吳成頌은 선교사였던 미국의 한학자 Hummel, Arthur William, 1884-1975에 대한 연구를 했다.<sup>34)</sup>

謝俊美는 한국의 중국학과 중국역사학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sup>35)</sup> 陳君靜와 劉艷艷는 선교사의 중국학에 대한 역할을 연구했다.<sup>36)</sup> 曹景文은 영국의 최근의 중국학에 대한 연구와 독일의 중국학 및 프랑스의 중국학 및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 회고, 기구, 학술성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 주력했다.<sup>37)</sup> 龔咏梅는 일본의 중국학이 일본침략의 목적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했다.<sup>38)</sup> 劉招成은 미국의 2세대 중국학자로서 스키너가 지역연구를 더 심화시키는 이론을 구축한 것으로 보고 2003년 국제학술계에서 그 방법론의 영향을 미쳤던 스키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국의 중국학이 사회과학방법론이 우세해 지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미국의 중국학에 대한 연구로 확대해갔다<sup>39)</sup> 呂杰은 2012년 문화사적 방법으로 미국의 중국학을 연구했다.<sup>40)</sup>

2006년 화동사범대학 해외중국학연구중심과 역사학계가 공동으로 20세기상반기의 중국학이라는 학술회의를 개최해서 청화대학, 중국사회과학원, 북경외국어학원, 복단대학, 상해사회과학원, 상해대학, 동제대학, 상해사범대학, 상해도서관, 독일함부르크대학, 미국 코넬대학 등 30명의 학자가 참석했고 청화대학의 李學勤교수도 참석했는데 그는 한학과 중국학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화동사대 대외한어학원의 許光華는 국학에 나타난 자신에 대한 인식을 서구의 중국학과 대조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sup>41)</sup> 2006년부터 화동사대 해외중국학중심은 <海外中国学评论>을 발간했다. 張穎華는 Dwight H. Perkins에 대해 연구했다.<sup>42)</sup>

화동사범대학의 경우 학술방법과 이론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한학과 중국학의 명칭에 따른 학과의 성격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도 제기했다.<sup>43)</sup>

2011년 화동사대는 80명의 학자를 초빙하여 "北美中国学的历史与现状国际学术研讨会"를 개최했다. 북미, 싱가포르, 타이완의 학자가 참여했다.<sup>44)</sup>

33) 吳原元, 太平洋战争期间美国中国学家的活动及其影响, 探索与争鸣, 2007年03期; 吳原元, 二十世纪六十年代末以来美国中国学的新走向, 历史教学问题, 2007年02期; 吳原元, 当代韩国中国学的历史与现状, 黑龙江史志, 2008年16期; 吳原元, 略述中美对峙时期美国中国学家的活动及其影响, 兰州学刊, 2009年07期; 吳原元, 改革开放以来中国的海外中国学研究, 国际社会科学杂志(中文版), 2009年02期

34) 吳成頌, 恒慕义的中国学研究, 华东师范大学, 2008년 碩士

35) 謝俊美, 韩国中国学和闵斗基的中国史研究, 华东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1996年05期

36) 陳君靜, 传教士与海外中国学的创立, 贵州文史丛刊, 1997年04期; 劉艷艷, 賴德烈的中国学研究, 2009 碩士

37) 曹景文, 中国学研究在英国, 时代与思潮, 2000年00期; 曹景文, 德国中国学研究的历史和现状, 南京中医药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3年01期; 曹景文; 郝兰兰, 法国中国学研究的历史和现状, 淮北煤炭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5年04期; 曹景文, 中国学在俄国, 燕山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7年03期

38) 龔咏梅, 试论近现代日本中国学与日本侵华政策的关系, 湖南社会科学, 2001年01期

39) 劉招成, 施坚雅模式研究——美国中国学社会科学化的一个剖析: 劉招成, 二战后三十年美国中国学发展概述, 中文自学指导, 2004年05期; 劉招成, 论战后美国中国学社会科学化研究取向的形成, 湖北社会科学, 2010年06期

40) 呂杰, 作为方法的“语境”——美国中国学史书写中的三个问题探讨, 2012 박사

41) 褚艳红, 美国中国学的奠基时期——“20世纪上半叶美国中国学”学术研讨会综述, 探索与争鸣, 2006年07期

42) 張穎華, 珀金斯的中国学——关于中国历史与现实经济问题的研究之探讨

43) 朱玉票, 基于学科性质的讨论: 汉学与中国学辨名, 安徽史学, 2008年03期

44) 于文善; 王传, 北美中国学的历史与现状国际学术研讨会综述, 淮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1年05期; 朱政惠, “北美中国学的历史与现状”国际学术研讨会述评, 史学理论研究, 2012年01期

2009년 화동사대의 周正宾와 吴炉火는 문화패권주의적 경향의 문제 등을 제기했다.<sup>45)</sup> 2009년 프레드릭 웨이크만을 방문하고 교류하기도 했다.<sup>46)</sup> 2014년 국가사회기금으로 화동사대에서 한국의 중국학 연구를 진행했다.<sup>47)</sup>

### 3. 중국본토학 연구를 위한 중국학과 설립확산

북경대학과 심천대학이 연합하여 국제중국학연토반을 독립적 학과로 설립했다. 北大深大联合举办国际中国学研讨班은 중국문화가 세계에 전파된 궤적과 방식, 수용국의 중국문화를 접수한 후 본국 민족문화에서 어떠한 층차로 어떠한 변화를 거치는지 이로 인해 국제수준에서 형성된 중국관과 그 내용, 변천과 특징을 연구하는 학과였다.<sup>48)</sup> 1998년 광동의 佛山科技学院 现代社会科学研究中心의 肖君和는 중화학中华学이라는 학과를 만들자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중화민족의 자주적 이론에 기반하여 중화를 인식하는 연구이면서도 외국의 중국학과 접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49)</sup> 2000년이래 세계적 문제에 대하여 중국인의 입장에서 새롭게 중국학의 건설로 답해야 한다.<sup>50)</sup> 광동 佛山大学人文学院的 姚朝文도 중국학과 다른 중화학의 설립을 강조한다.<sup>51)</sup> 문화시각 속에서 중국학 연구를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sup>52)</sup> 북경의 국어대학의 해외한학연구중심의 张西平은 문화적 자각의 입장에서 해외중국학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sup>53)</sup>

1997년 清华大学은 20세기 국제한학과 중국에 대한 영향의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북경의 학술연구는 李学勤과 葛兆光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편찬한 《国际汉学著作提要》(강서교육출판사, 1996)에서도 외국의 중국학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sup>54)</sup> 李学勤는 한학과 중국학의 분리를 주창했다. 인민대학의 张晓劲는 미국 중국학자들을 세대별로 나누어 흐름을 고찰했다.<sup>55)</sup> 葛兆光은 2002년 《域外中国学十论》에서 외국의 중국학에 대해 분석했는데 비평적 중국학의 수립을 강조했다.

侯且岸(北京行政学院)이 서구 한학과 중국학 연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중국학과의 제정이 주장되었다.<sup>56)</sup>

한편 2003년 이래 상해시와 상해사회과학원에서 세계중국학논단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는데 국제사회에 중국과 상하이를 알리고 상호간의 교류를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밝혔다.<sup>57)</sup> 참석자는 상해사회과학원王荣华, 북경대철학과汤一介, 강소성淮阴师范学院중문과 萧兵, 러시아의 季塔连科, 하버드옌칭연구소의 杜维明, 叶舒宪, 葛剑雄, 타이완의 石之瑜, 林毅夫, 오스트렐리아의 王赓武, 북경대 중문과 乐黛云, 사회과학원철학연구소 俞宣孟, 인도델리대학의 莫汉蒂

45) 周正宾； 吴炉火，中国学研究探源，齐齐哈尔师范高等专科学校学报，2009年04期

46) 周锡瑞； 王平，世界的魏斐德：中国研究的理论与方法——访周锡瑞教授，历史教学问题，2009年04期

47) 于微，当代韩国的中国学，沈阳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4年02期

48) 侯占虎，北大深大联合举办国际中国学研讨班，古籍整理研究学刊，1988年01期

49) 肖君和，中华学：中华民族的自我理论思维掌握，学术研究，1998年07期；王东，面向新世纪 创建中国学，中国青年科技，1999年01期

50) 走向21世纪的中国学研究，文艺理论研究，2000年02期

51) 姚朝文，中国学与中华学比较研究，中华文化论坛，2001年04期

52) 赵志坚； 张雪丽，文化视野下的中国学研究——兼评《中国学研究》，文史杂志，2004年03期

53) 张西平，树立文化自觉，推进海外汉学(中国学)的研究，学术研究，2007年05期

54) 赖功欧，外国学者的“中国学”——读《国际汉学著作提要》，江西社会科学，1996年11期

55) 张晓劲，中国学研究在美国，中外管理导报，1998年01期

56) 侯且岸(北京行政学院)，从学术史看汉学、中国学应有的学科定位，国际汉学，2004年01期

57) 首届“世界中国学论坛”论文征集公告，世界经济研究，2003年03期

Mohanty, 캘리포니아대학의 Christopher A. Reed, 李希雅, 韦立德, 중국사회과학원 국외중국학 연구중심의 黄育馥,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의 熊月之가 참석했는데 한학과 중국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한학연구의 계승과 발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sup>58)</sup> 중국사회과학원문헌신식중심도 이를 소개하고 알렸다.<sup>59)</sup> 2006년 400명이 참석하고 상해엑스포와 중외문화라는 논단이 구성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상해와 중국에 대해 외국에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다.<sup>60)</sup> 2008년 9월, 2010년 11월 400여명의 국내외 학자들의 포럼이 개최되었다. 黄仁伟에 의하면 “중국학은 한학을 포함, 당대중국연구를 주제로 한학, 중국연구, 국학의 삼자 결합을 의미하며 중국학 담론권의 일차돌파이자 중국 소프트 파워의 일차 돌파이다.”라고 한다.<sup>61)</sup> 2013년 3월 5회 포럼이 개최되어 중국의 현대화에 대한 정치경제 등 각분야의 5백명의 연구자들이 모였다.<sup>62)</sup> 중국의 문화소프트 파워의 확산을 목적으로 내걸고 있다. 2015년에는 미국에서 포럼분회가 열리기도 하였다.<sup>63)</sup>

2005년 國際漢學(1990년대말 창간-섬서대학국제한학연구중심)잡지에 독일의 학자들이 독일 제국과 중국연구와 관련된 독일중국학의 전개를 소개했다.

2007년 북경에서 아시아지역의 중국학 연구술평이라는 회의가 열렸다. 중국사회과학원국외중국학연구중심이 주최하였고 참가한 아시아 즉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의 연구가 소개되었다. <sup>64)</sup> 하남 정주에서 북경외국어대학중국해외한학연구중심과 북경대학 등이 국제한학(중국학)연구회고와 전망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sup>65)</sup>

전국적 학술조직의 건립과 국내외 중국학 사이트의 건립 등 연구자의 상호교류의 강화도 주장되었다. 2009년 국가도서관에서 해외중국학문헌연구와 복무 학술토론회가 열려 100여명이 참가했다.<sup>66)</sup> 2012년 북경공업대학에서 당대중국학국제논단(IFCCS5)이 중국사회학회, 영국노팅험대학과 함께 개최되어 중국의 사회와 관련된 세계적 연구자 200여명이 회의를 진행했다.<sup>67)</sup>

본토중국학의 건립도 주장된다. <sup>68)</sup> 절강대학이 2007년 중국학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학과로 하고 외국의 유학생도 유치하였다. <sup>69)</sup>

2012년 북경연합대학에도 해외중국학연구중심이 건립되었다. 이는 교육부의 해외문화조우주 취 공정의 일환이라고 하며 우수한 문화의 세계적 확산이 목표라 한다.<sup>70)</sup>

58) 世界走向中国:从汉学到中国学——2004·上海“世界中国学论坛”发言选登, 淮阴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5年01期

59) 禾丰, 中国学:在世界范围内迅速兴起——记首届世界中国学论坛, 国外社会科学, 2004年06期

60) 黄凯锋, 中国与世界:和谐、和平——第二届世界中国学论坛海外学者观点综述, 毛泽东邓小平理论研究, 2007年01期

61) 黄仁伟(상해사회과학원부원장, 通过“中国学”更好地认识中国, 社会观察, 2010年12期, 7쪽.

62) 乔兆红, 中国道路:战略机遇与合作共赢——第五届“世界中国学论坛”要义解读, 国外社会科学, 2013年04期; 楼雯, 近500名中外学者齐聚第五届世界中国学论坛——邱均平教授作“中国与世界:一流大学的比较分析”报告, 引起广泛反响, 评价与管理, 2013年04期; 激辩中国道路——世界中国学论坛观点集粹, 社会观察, 2013年04期

63)

64) 马汉茂; 廖天琪, 德国的中国学研究——历史、问题与展望, 国际汉学, 2005年02期

65) 卞继之, “国际汉学(中国学)研究回顾与展望学术研讨会”在郑州召开, 国际汉学, 2009年01期

66) 汤一介, 研究“海外中国学”的意义, 国家图书馆学刊, 2010年01期

67) 韩秀记, 第五届当代中国学国际论坛(IFCCS5)——“中国未来的发展:社会建设与社会管理”论坛综述, 北京工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3年02期

68) 何一民, 海外“中国学”与中国“中国学”, 四川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1年01期

69) 张良; 王云路, 建立中国学专业的探索, 中国电力教育, 2012年35期

70) 许峰, 海外中国学研究的发展前景——北京联合大学海外中国学研究中心成立大会暨学术研讨会述要, 中共党史研究, 2012年11期; 韩强, 推动中华文化走出去必须加强海外中国学研究, 新视野, 2012年06



해외 중국학연구에 대해 미국의 현대중국학과 같은 학과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sup>71)</sup>

四川대학에서 2013년 60명의 학자들이 모여 사천대학중국학중심이 건립되었다.<sup>72)</sup> 중국학의 본토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지를 표방했는데 그것은 유럽중심론적 서방중심주의적 사유방식의 제거로서 학술주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이며 둘째 학술담론권을 높이는 것으로 서구담론을 비판하고 중국문화전통을 돌아보며 중국고전에 대한 연구에서 보편적 세계주의를 발굴할 것이며 중국의 입장에 맞는 중국의 길을 해석한다는 것, 넷째 후현대사학의 영향에서 벗어나 현대 중국의 역사서사적 연구를 하며 이를 통해 중국담론의 문화적 흡입력을 높이도록 대외선전을 강화한다는 것이다라고 표방했다. 본토중국학의 성립은 중화민족문화자각의 표현이자 의식배양의 경로라고 주장된다. 何一民은 서방세계와 평등하게 대화하고 국제적 수준의 연구를 통해 담론권을 쟁취하고 진실하고 객관적인 중국의 국제이미지를 재구성한다고 강조했다. <sup>73)</sup>

남경사범대의 杨四平도 중국학건설을 통한 조우주취 전략을 주장했다.<sup>74)</sup>

인민대학의 韩星은 중국이 있는 중국학의 학술연구라는 주장을 전개했다.<sup>75)</sup> 복단대학의 吴兆路는 중국이미지의 변화를 강조했다.<sup>76)</sup> 중국의 국가안전과 해외중국학의 관계를 논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의식형태투쟁의 담론권과 영도권 개혁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논의되기도 한다.<sup>77)</sup>

### Ⅲ. 해외중국학의 수용과 비판

#### 1. 미국중국학 연구

<그림 2>

期 .107-8쪽 .张效民, 海外中国学研究学科建设刍议, 国际汉学, 2012年01期; 梁怡, 海外中国学研究中的理论和方法, 北京联合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13年01期; 张注洪, 学界对海外中国学的研究:回顾与思考——以对海外中国近现代史研究的历史考察为例, 北京联合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13年01期; 魏海生, 海外中国学研究的对象、方式和向度, 北京联合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13年04期; 王爱云, 海外当代中国学研究的机遇与挑战, 北京联合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13年04期; 柳建辉, 海外中国学研究与中国特色社会主义, 北京联合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13年04期; 王思聪, 赖德烈美国中国学的维度、比较与特色, 学术界, 2014年06期

71) 侯且岸, 汉学(中国学)专业研究生的培养——以“美国现代中国学”方向为个案, 国际汉学, 2012年02期

72) 张耀铭, “中国学”的本土化, 甘肃社会科学, 2013年02期

73) 施雪华, 海外中国学研究新进展, 甘肃社会科学, 2013年02期; 罗中枢, 文化自觉与本土中国学, 甘肃社会科学, 2013年02期; 何一民, 本土中国学构建意义与前景, 甘肃社会科学, 2013年02期

74) 杨四平, “走出去”与“中国学”建构的文化战略, 解放军艺术学院学报, 2013年02期

75) 追求“有中国的中国学”的学术力作——《思想世界的概念系统》评述, 烟台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3年03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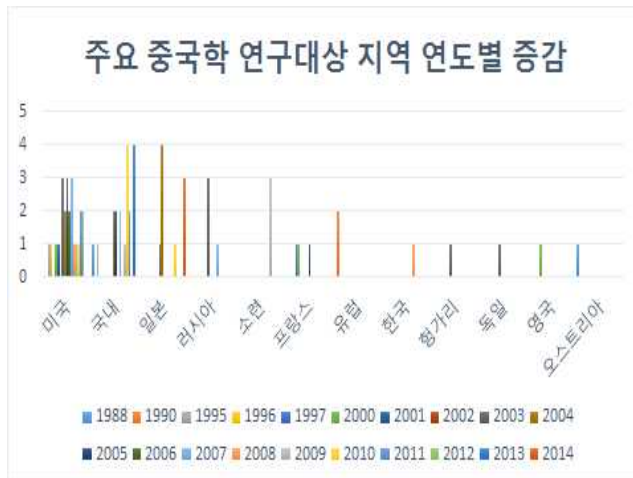
76) 吴兆路, 中国学研究视域, 学术月刊, 2013年06期; 方铭, 中国学研究视角的意义, 学术月刊, 2013年06期

77) 刘颖, 国外现代中国学与中国国家安全, 中国共产党干部论坛, 2014年02期; 张泽一; 郭云, 当代海外中国学视角下的我国意识形态安全治理, 社会科学家, 2014年07期; 徐庆超, “中国学”发展的历史逻辑及前景分析, 新疆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5年04期



위 그림에서처럼 중국내의 국외중국학연구는 주로 미국의 중국학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3 >



또한 미국의 연구가 개혁개방이래 꾸준히 증가했고 이외 일본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유럽에 대한 연구는 비중이 적지만 소련과 기타 지역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학 연구가 중시된 이유는 미국중국학의 국제적 위상과 관련이 있다.

미국의 중국학연구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1981년에 출판된 <미국중국학수책>을 참고로 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연구인원이 당시 1045명(미국인 530명, 화교출신 515명)으로 미국재단, 기금회, 장학회의 연구비 보조를 794명이 받고 있어서 중국연구가 상당히 발전했다는 것을 소개하였다. 78) 페어뱅크 교수에 관한 연구는 1991년 그의 사망 이후 이어졌다. 79)

미국 대학 화인 교수가 쓴 글에서 미국의 한학은 서구의 한학에서 유래되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해 경제배관으로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개방적 정책을 취했고 선교사들이 1세대 중국연구자가 되었다. 이들 선교사가 한학을 연구했는데 裨治文(Eliajan C. Brifgeman 1801-1861)가 1832년 마카오에서 <중화잡지>를 창판하고 1841년 중영문 대조된 <광동화 주해 문선>을 출판했다. 고스畏(Samuel W. William, 1812-1884)선교사 한학자는 일

78) 李今山, 美国耶鲁大学的中国学研究, 时代与思潮, 1989年02期

79) D.冈萨雷斯; 陈一梅, 美国中国学研究的开拓者——费正清, 国外社会科学, 1992年04期

본어 번역도 하고 1848년 출판된 <중국the middle kingdom>을 출판하여 중국풍토와 기후 등 전반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한동안 중국은 이렇게 불렸다. 그는 또한 <중문어음자전>을 1874년 발간했고 이후 예일대학의 중문과 교수가 되었다. 중문과는 바로 예일대학에서 처음 설립된 것이다. 그는 중국이 서방보다 낙후되게 된 원인을 중국의 문화와 종교에서 찾았고 서구의 문화로 중국을 동화시키고자 했으나 중국의 고대문명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는 양상을 보였다.<sup>80)</sup>

초기 미국한학의 특징은 중국의 고대문명과 중국사회의 특징을 박히는 것이었다. 史密斯(Arthur H. Smith)의 <중국인의 특징>은 산둥에서 오랫동안 체류하고 작성한 명저로 중국사회는 빈궁하고 사회구조가 견고하다고 미국과 비교하면서 미국독자들의 마음에 부합하였다. 예일대학교수 라티모어(Kenneth S. Latourette)의 <중국역사와 문화>가 1934년에 출판된 것도 이러한 특징과 같다. 이외 Hosea B. Morse, 1855-1934의 <중화제국의 국제관계 international Relation of the Chinese Empire>가 1910년과 1918년에, 丁匙良(Williams A.P. Martin 1827-1916), 傅兰雅(John Fryer), 林乐知(Young J. Allen, 1836-1907)이 학술성은 강하지 않지만 북경동방학회의 회장으로 강남제조총국에서 일하고 향후 중문과 교수가 되었다. 알렌은 <만국공보>를 편집 출판하고 중국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는 것이 위주였다.

미국의 한학연구는 유럽의 외국학자들의 도래에서 비롯된다. 독일의 劳费尔(K. B. Laufer), 夏德(F. Hirth)가 있고 이가운데 라우퍼는 1898년 미국에 와서 고고학과 인류학의 방법을 통해 중국의 고대문화를 연구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강의하였다. 주로 중서교통사를 연구하고 프랑스의 펠리오, 영국의 A. H. Giles도 그를 통해 미국에 오게 된다. 화교출신도 1900년대 초부터 활약하면서 시카고대학의 陳受頤의 강좌가 이후 연구소로 발전하게 된 것이며 戈蟬化는 1879년 하버드대학 중문과의 전임이 되었고 1930년대는 하버드에서 赵元任, 梅光迪이 활동했다. 중문과가 처음 설립된 것은 예일대학이지만 한학연구가 발전된 것은 하버드에서였다. 하버드 교수 차알스 M. Hall이 1928년 650만 달러를 들여 하버드옌칭연구소를 건립하면서 시작된 것인데, 고대문화와 문명의 가치를 유지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1932년 소장도서 7만 5천권에 이르는 등 당시 미국의 중국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버드 옌칭 연구소의 첫 번째 소장은 프랑스 국적의 叶理绥(Serge Elisseeff, 1889-?)로 펠리오의 추천으로 미국에 왔지만 유럽의 특히 프랑스 한학을 그대로 답습하는 방식을 취했다. 杨联升, 洪业 등이 연경대학과 하버드를 연계하며 활동했다. 1998년 뚜웨이밍교수가 원장이 되었다.<sup>81)</sup>

이렇게 유럽 특히 프랑스의 한학 수준에 미치지 못하던 미국의 한학계는 1930년대 점차 독자성을 지니게 된다. 그것은 미국의 중요학술단체 미국학술단체연합회가 도움을 제공하여 1928년 원동연구위원회가 이 학회 내에 설립되고 이것이 원동학회로 발전하였고 1956년 아주연구학회로 개칭되어 미국최대의 아시아연구전문단체가 되고 회원도 수천명에 이르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내용상으로 미국한학연구가 유럽과 구별되게 된 것은 하버드대학의 费正清(John King Fairbank 1907-1991)에서였다.<sup>82)</sup> 그는 연구의 중점을 근대중국에 두었고 전통한학자와 달리

80) 王晴佳, 美国的中国学研究评述, 历史研究, 1993年06期

81) 秦平, 海外中国学研究在哈佛, 学习月刊, 1998年08期

82) 侯且岸, 费正清与美国现代中国学, 史学理论研究, 1995年02期; 陶文钊, 费正清与美国的美国学, 历史研究, 1999年01期; 项镔(深圳大学社会科学院), 费正清创建现代美国中国学的启示, 学术月刊, 2000年01期; 夏明亮, 西方中国学之父费正清, 文史月刊, 2007年07期; 杨静林(四川大学外国语学院), 略论费正清对美国中国学研究的贡献与影响, 四川教育学院学报, 2007年07期; 赵晨诗, 论美国汉学到中国学的变迁 ——以费正清为中心, 北京语言大学 硕士: 杜茂玉(哈尔滨师范大学历史系), 费正清与中

정계에도 직접 복무하여 미국의 중국정책에도 관여하게 되는 등 미중관계에 대한 연구에 주력했다. 중국에서 공부하며 국민당관리들과도 접촉했다. 그의 학문적 계보는 Hosea B. Morse와도 관계가 있고 콜럼비아 대학 출신 청정부의 관리이며 학자였던 장절발蔣廷獻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1932년 4년간 공부한 뒤 1936년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가 되었다.

중국인 학생 邓嗣禹와 중미관계사, 청사 등 근대사를 중시하며 지역연구를 창시하면서 하버드 학파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태평양전쟁 시에는 미국정부에서 일하면서 국공양당관리와 모두 접촉하면서 광말약, 전단승과 관계가 깊었고 이후 맥카시 열풍 때 곤욕을 치르게 된다. 페어뱅크는 문헌자체에 매몰되는 유럽한학의 경향을 비판하고 문헌에서 메시지를 찾는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지역학연구는 미국의 국가이익과 긴밀하게 전개되었다. 미국의 확장과 함께 이 역시 미국정치학회, 사회학회, 경제학회 등 총 13개 분과학회 연합으로 1924년 출범한 비정부조직으로 학제간 연구분야를 융성을 목표로 했다고 소개한다.

1943년에는 정부의 요구로 세계지역연구회를 발족시켰고 이전의 한학적 성격의 유용한 정보 지식의 부재와는 다른 이를 통해 총체적 지식, 타지역에 대한 지식축적을 통해 이론의 보편화를 도모, 그 결과물을 평화유지에 쓰며 분과들 간의 협력과 집단적 협업, 타문화에 대한 체계적 세밀한 연구로 문화간 이해의 증진, 모든 분과학문이 동의하는 공통의 지식생산, 이를 통해 지식축적을 가능하게 한다는 네 가지의 목표를 추구하며 발족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1940년대 이래 미국의 지역학 연구의 발전 속에 지역의 편재가 이루어졌고 중국학 역시 이러한 미국의 학문구도 속에서 지역학의 중국학으로 자리매김 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탈식민 국민국가를 연구단위로 한 것으로 미국의 반식민적 자유무역주의라는 국가적 노선에 기반한 것이기도 했다.

미국의 해게모니 확장과 함께 지역연구도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1946년 14개에서 1970년대 지역학연구가 전체 예산의 4/5를 사용할 정도의 312개로 급증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록펠러 재단이 1946년 예일대의 극동 및 러시아 연구 프로그램, 워싱턴 대학, 컬럼비아대 러시아 연구소에 지원했고 1951년 이후는 포드재단이 미국학술단체협의회(인문학분야)에 연구기금 관리에 참여하고 여러지역의 소분과 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중국의 경우 1959년 활동하기 시작했다. 워싱턴대학 극동연구소(1945), 컬럼비아대 동아시아연구소(1949)이후 1957년 하버드대학의 동아시아센터가 창립되어 페어뱅크와 라이샤워가 활동하면서 미국정부와 긴밀한 관련을 지녔고<sup>83)</sup> 동아시아 연구전반에서 근대화론, 크레몰린론이 전자는 전전의 중국, 후자는 전후의 중국에 적용된 패러다임이 되었다.<sup>84)</sup> 이는 비서구 사회를 정체된 사회로 보는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페어뱅크의 도전 응전론도 이 근대화론의 자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페어뱅크, 라이샤워, 알버트 크레이크의 공저 <동양문화사>는 중국과 한국의 쇠퇴와 일본의 부상을 근대예의 도전과 응전이라는 방식으로 묘사한 근대화론적 시각으로 일본학과 중국학 연구자의 급증에 따라 그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당시 연구는 사회과학

国学研究, 黑龙江教育学院学报, 2008年02期: 付译婷, 费正清对美国中国学的影响, 重庆科技学院学报(社会科学版), 2008年04期; 邹佳辰(吉林大学文学院历史系), 从费正清与拉铁摩尔Owen Lattimore, 看美国“中国学”的确立, 佳木斯教育学院学报, 2011年04期; 郑良旭, 费正清的“中国观”研究(1929-1991)

83) 슐레스키, 로널드(Ronald Suleski)(2008), 김성규 옮김. 『하버드대학의 동아시아연구』. 현학사, 2008. 22-23쪽.

84) 커밍스, 브루스, 해리 하루투니언(2000), 「미국 아시아학의 비판적 검토」, 『역사비평』 54: 126-171

쪽에서도 홍콩의 이민자들의 인터뷰 등이나 대만의 자료로 진행되었다. 대륙자체를 다니며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sup>85)</sup>

대학 내 지역학 연구소들은 연방정부의 관여로 설치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연구가 제도화 되었다. 이는 1958년 국가방위교육법의 제정으로 1961년부터 풀브라이트(Fulbright-Hays) 장학금이 지급되고 제 6조로 외국어, 지역연구 지원도 입법화 되었다. 현재까지 미국 내 52개 대학 125개의 지역연구 센터가 이미 예산을 지원받으며 연평균 2천명의 박사가 배출되고 있고 50년간 10만명의 박사가 배출되어 미국 내 학계, 재계, 정부기구에서 종사하고 있다. 孫越生에 의하면 미국의 중국학은 포드기금의 반을 사용하여 연구된 방대한 것으로 중국연구자는 1951년 143명에서 1970명으로 증가했으며 55개의 대학에서 1960-70년 학사 1700, 석사 1000, 박사 142명이 배출되었다고 하므로 중국연구가 미국의 지역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음을 증명한다. 또한 연구의 비중이 한학이 30%, 현대중국에 대한 연구가 전체의 70%로 증가했다.<sup>86)</sup>

1970년대는 이미 전후 확산된 지역학 연구가 미국의 헤게모니 확장과 함께 전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시행되었고 페어뱅크의 연구도 이러한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냉전시기 미국의 주요 관심지역은 일본, 중국, 소련, 남미였기 때문이다.<sup>87)</sup>

보통 중국내에서 미국의 중국연구를 소개하면서 미국의 중국연구가 유럽에서 독립하게 된 이유를 크게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 내에서 이러한 냉전 후 미국의 지역학 연구와 중국학을 연계하여 비판적으로 다룬다.

비판적 연구에 의하면 실상 미국의 지역연구는 국가방위교육법의 제정, 이러한 법에 의거 민간재단의 자원이 연방정부 기금 연구비로 지역학 연구에 투입된 배경,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주요기관인 사회과학연구협의회(SSRC)의 활동목적 등을 본다면 학술사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유럽한학의 방식이 흡인력을 지니지 못한 이유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정부와 군부가 대학의 인적자원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해외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전문가의 양성을 필요로 하면서 지역연구가 강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페어뱅크는 정부와 일하면서 이러한 영향을 받았던 것은 분명하다. 전후 대학에 미국 안보와 정부의 요구를 명시한 연구비가 민간재단과 정부에 의해 제공되어 냉전적 지식-권력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대학분과학문 연합체이자 민간재단 및 정부기금 배분의 주요 채널 SSRC와 연방정부의 국가방위교육법이 지역학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했다.

1977년 동아시아센터가 페어뱅크 연구센터로 개명 설립되었고 페어뱅크는 미국미주연구학회와 역사학회의 회장을 맡게 되고 조셉 레벤슨<sup>88)</sup>, 벤자민 슈워츠 등의 제자를 양성했다. 이들은 페어뱅크의 도전과 응전이라는 모델을 대개 수용하였다.

그러므로 냉전시기 중국학의 발전은 미국의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 대한 지역학적 관점에서의 관심의 증대라는 국가적 이해관계에 따른 결과라는 측면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85) Fogel, Joshua(2013), "The Cold War and China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 別冊 8, 7쪽.

86) 孫越生, 从《中国国情丛书》说到国外中国学, 甘肃社会科学, 1994年04期: 仇华飞, 当代美国中国学研究述论, 学术月刊, 2003年02期

87) 채오병, 307쪽.

88) 杨华, 列文森的中国学研究特点

하지만 동아시아연구에 대한 시각의 변화도 초래되기 시작했다.

1969년 3월 젊은 학자와 학생들이 “우려하는 아시아 학자위원회(CCAS)Committee of Concerned Asian Scholars”를 결성해서 학문의 대외정책에 대한 공모 내지 침묵을 반대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아시아 사회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베트남 전쟁 및 미국 대학사회의 좌경화 되었다. 실제 아시아와 서구 학자들의 네트워크를 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도 천명했다. 1975년 찰스 틸 리가 편집한 <서유럽의 국민국가형성>은 정치적 근대화론에 대한 전면 비판서로서 지역학 연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흔들렸다.

1984년 페어뱅크 제자 폴 코헨이 <탐구중국역사: 미국연구현대중국사의저작Discovering History in China>을 출판하면서 이러한 도전과 응전 모델을 비판하였는데 이를 서구중심적인 시각이라고 보고 중국중심의 시각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지역성에 대한 연구, 국부적 연구, 중국사회의 상하층 층차 연구, 사회과학방법론의 조합 등을 제기했다. 필립 쿤 역시 상품경제의 발달 등 중국의 내재적 요소를 중시할 것을 제기했다. 이러한 내재적 요소의 강조는 전통의 문제를 다시 살펴보게 했고 임옥생과 장호도 도전과 응전 모델을 수정하는 입장이었다.

중국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관점이 지역연구에 도입되면서 1980년대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프리드릭 웨이크만, 예일대학의 조다단 스펜스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비판적 아시아학을 주장하는 프라센짓 두아라의 시카고 대학도 새로운 진영을 구성했다. 이러한 지역연구는 베버의 제도와 기능으로 중국의 도시를 연구하는 관점을 차용했던 페어뱅크의 연구에 반대하고 인류학방법을 통해 제도적요소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강조하는 연구를 수행했고 스키너는 미시와 거시연구의 겸용, 상층에서 하층으로, 전체에서 국부로 공간요소를 중시하는 방법 등을 통한 도시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물론 이론적 한계나 국가역할의 간과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특히 역사성의 배제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벤자민 슈워츠는 지역연구는 정치적 공리성에 기반하고 있어 오리엔탈리즘적 연구의 다른 표현형식에 불과하며 서구확장담론을 내포하고 있어서 진정한 중국중심관은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sup>89)</sup>

결과적으로 유럽한학의 전통적 연구방식이 미국에서는 크게 흡입력을 지니지 못했다. <sup>90)</sup>

1990년대는 외국의 중국연구에 대해 좀 더 심화된 연구가 나타나는데 서구는 1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출현 등에 따라 동방의 직관주의나 비이성주의 신비주의를 연구하는 경향에서 중국이 1949년 공산주의가 되고 메카시즘과 한국전쟁으로 중국에 대한 연구는 현대중국연구로 시점이 옮겨졌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중국의 전통과 현대, 인문과 사회과학 모든 분야를 종합하는 성격을 띠었다고 하고 주로 현대화의 길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정체된 이유 등을 분석하는 경향을 띠었다고 보았다.<sup>91)</sup>

미국 내에서는 냉전의 해체로 지역학은 글로벌 연구를 지향해 나갔다. 경직된 지역클러스터가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며 1996년 세계화 문제가 등장하면서 지역연구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연구비의 감소가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엘리자베스 페리의 논문에도 나타났다.<sup>92)</sup>

1978년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의 연구 영향하에 에리프 딜릭은 이에 기반하여 세계화와 본토주의를 고민하며 1980년대 동아시아의 유학부흥운동은 서구의 현대성에 다른 아닌 것이라는 비판도 전개했다.<sup>93)</sup>

89) 陈倩, 区域研究在美国中国学中的兴起, 辽宁行政学院学报, 2007年05期

90) 王晴佳, 美国的中国学研究评述, 历史研究, 1993年06期

91) 忻剑飞, 国外中国学的发展趋势, 党史研究与教学, 1992年01期

92) 裴宜理; 黄育馥, 中华人民共和国和美国的国学研究:50年, 国外社会科学, 2004年02期

93) 范志慧; 朱静, 美国的中国学:汉学从传统到现代的转身, 河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8年05

냉전 이후 세계화 시기 경직된 국가단위 연구는 세계화 현상에 맞추어 변화되기 시작했고 미국 밖에서 들어오는 인력과 연구비로 후기구조주의적 지역학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일환이 1970년대 이래 비판적 아시아학 중국학의 흐름을 계승한 시카고 대학의 두아라는 중국사에 대한 탈민족주의적 해석을 시도하고 동아시아적 근대의 개념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Duara, 1996, 2008)

미국 내의 이러한 중국학의 새로운 주장은 냉전시기부터 발전된 미국의 근대화론과 경제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담론으로서의 중국중심의 발전론, 동아시아적 근대론 등의 출현으로 볼 수 있다. 국가계획합리성을 강조하는 발전국가론 등의 출현도 그 하나의 일환이다.

중국학 연구와 관련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의 경우 총체적 지식의 축적을 추구했던 지역학의 각 지역의 고유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종속이론 세계체제론 및 탈식민주의, 디아스포라 연구로의 확장 가능한 각 지역연구에서 나온 이론들의 상호간의 파급효과를 노리며 비판적 지역학의 흐름으로 확대되었고 비판적 중국학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연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중심의 연구에 사이드의 이론 및 각 지역연구의 이론체계가 드리워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연구가 정책지향보다는 역사와 같은 인문학 연구가 중시되면서 이러한 비판적 중국학의 흐름을 낳았다는 미국 내 문제제기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것은 연구비 지원방식이 하향식이 아닌 동료심사로 이루어지는 상향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젠다 연구의 가능성, 미국의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적 학문분위기가 조성하는 비판학문 생존의 가능성 등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을 구성하는 국민국가, 분할된 지역이라는 지역연구라는 범주가 지역학의 발전과 함께 확고히 자리잡게 된 것은 자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총체적 지식의 구축에 대한 지역 내의 고유한 문제의 제기라는 문제의식을 만들어 내면서 파열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을 중국학 연구에서도 적용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 내 현대중국연구는 이미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다.<sup>94)</sup>

이러한 외국의 중국연구에 대한 소개에서 역사적인 흐름뿐 아니라 현재의 정치경제측면의 연구가 증대된 것에 대한 인식도 나타났다.<sup>95)</sup> 2000년 이후 여성의 측면에서, 개별 중국학자나 각 대학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 심화되기도 했다.<sup>96)</sup> 연구조직이나 조건, 학과 등 체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sup>97)</sup> 로드니 맥파커의 이론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sup>98)</sup>

이론의 중국적응에 대한 관심은 시카고 대학 두아라의 문화네트워크 시각의 수용에 이른다.<sup>99)</sup> 미국중국학의 서구중심모델의 연원을 분석했다.<sup>100)</sup> 조셉에세릭은 페어뱅크, 프리드릭 다음의

期

94) 상동

95) 朱雪宝, 中国学在欧洲, 西欧研究, 1988年01期

96) 黄育馥, 从性别的视角看美国的中国学研究, 国外社会科学, 2003年04期; 耕香, 美国著名中国学家 R.C.鲁道夫(1909~2003)逝世, 国外社会科学, 2003年05期; 何品, 美国加州大学柏克莱分校中国学机构综览, 档案与史学, 2003年01期; 동북대학의 2003년 연구성과 王建平; 曾华, 美国战后中国学: 李增田, “中国学应是为数不多的专门研究领域之一”——鲍大可中国学思想研究, 广西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4年03期; 李增田, 鲍大可的中国学思想研究, 国外社会科学, 2004年05期

97) 黄育馥, 20世纪80年代以来美国中国学的几点变化, 国外社会科学, 2004年05期; 黄育馥, 20世纪80年代以来美国中国学的几点变化, 当代中国史研究, 2005年02期

98) 王海光(中共中央党校党史教研部), 海外“中国学”的一得之见——关于麦克法夸尔“铁三角”理论的评价, 理论学刊, 2004年09期

99) 陈建坡, 海外中国学的文化网络视角再思考, 山东大学, 中国近现代史, 2006, 硕士

3세대로 문화사연구로 소개한다.<sup>101)</sup>

## 2. 일본중국학에 대한 연구

중국에 대한 일본의 중국학 연구는 탈아론적 근대에 대한 반성을 강조하는 다케우치의 입장도 있지만 전후 일본 지식인들의 중국인식은 전쟁전의 인식 즉 중국을 멸시하는 반중적 입장과 중국혁명의 역사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맑스주의자들의 친중의 목소리가 함께 흐르면서 이와 동시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의 일본점령 정책과 국제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편입되는 배경으로 인해 중국학의 시각도 영향을 받았다. 그것은 미국으로부터 수용된 근대화론과 함께 미국의 극동정책에 따라 형성되기 시작한 지역연구(구역연구)로서의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한 중국학(Chinese Studies)이 수용되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이다.<sup>102)</sup>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학문과 중국에 대한 인식 모두에서 작동되었다. 전전의 쓰다 소키시(津田左右吉, 1873~1961) 등의 근대주의적 중국관을 부정하는 다케우치 요시미의 『루선』(1944)과 「중국의 근대와 일본의 근대」(1948)에 보이는 중국관은 일본의 탈아적 근대주의를 비판하고 오히려 중국을 보면서 아시아의 미래를 동경하는 그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란 관점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미조구치 유조는 ‘방법으로서의 중국’을 주창했다.<sup>103)</sup> 그는 일본의 한 학자들이 사기나 당시 연구와 같이 고전 연구에 매몰되어 그들이 안고 있는 중국이미지는 현대 중국과 괴리되어 있는 중국이 빠진 중국읽기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후 문명개화의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제기되었던 진화사관이나 혁명사관 또한 유럽에서 발생한 이론을 갖 대로 삼아 중국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중국과도 괴리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즉 한학자들의 고전 취미나 근대주의자 혹은 맑스주의자의 근대에 관한 관심은 연구자의 주관적 관심에 의해 선별된 중국 연구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중국을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이처럼 일본도 상대화하는 눈에 의거하여 중국을 상대화하고 그러한 중국에 의해 다른 세계에 대한 다원적 인식을 충실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인식주체의 시선을 중국의 사회주의로부터 문혁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나아가 유럽을 절대화하지 않고 동양 혹은 중국도 절대화 하지 않으면서 유럽도 중국도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간주하는 다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중국을 역사적으로 객관화하고자 한 것이다. <sup>104)</sup>선진후진의 도식을 버리고 독자적인 중국의 모습을 찾으려 하면서 “원래 중국의 근대는 유럽을 넘어선 것도 아니며 뒤떨어진 것도 낙후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유럽과도 일본과도 다른 역사적으로 독자의 길을 처음부터 걸어온 것이며,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중국의 부흥은 중국이라는 거울 즉 인식의 대상이 질적으로 변한 것이다. 그리고 인식주체인 일본도 변했다. 이제 단순한 이분법적 범주로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글로벌 시대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긴밀하고 복잡하고 불안정하다. 중국의 부상은 충격이며 여전히 중국에 대한 우월의식을 지니고 협애한 내셔널리즘으로 중국을 바라보던 시각으로는 제대로 중국을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연구하는 주체와 연구하는 대상 사이의 긴장이 결

100) 韦磊, 美国中国学中的西方中心范式——以中国民族主义研究为例, 人文杂志, 2008年06期

101) 周锡瑞; 周武, 从社会史到文化史:当代美国中国学的典范转移——访周锡瑞教授, 历史教学问题, 2012年05期

102) 양일모, 사상을 찾아가는 여정, 일본비평6호, 41쪽

103) 溝口雄三, 『方法としての中国』,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89, 5쪽.

104) 溝口雄三, 『方法としての中国』, 138쪽.134쪽



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한학이 중국없는 중국을 연구한 것이라면 현재 일본의 중국 연구는 일본에 대한 위기의식의 결여와 함께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을 파악하지 못하는 중국 없는 중국연구라고 하였다.

서구의 충격에 비추어 중국의 충격이라 표현하였지만 양국간의 공동의 노력도 모색하여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일중지식 공동체 활동을 전개하면서 아시아에도 일본에도 사상의 자원이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음을 주창한 것이다.

다케우치, 미조구치를 이어 야마무로의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란 주장은 여럿이면서 하나인 아시아라고 주장한다. 그는 유럽을 조급하게 비판하고 아시아로 대치하려는 근대의 초극이나 세계사의 철학과 같은 유럽중심주의에서의 탈피가 아니라 “공간인식과 공간심성에 의해 사상이 어떤 규정을 받아 왔는가. 혹은 사상에 의해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명할 수 있을까라는 지식과 공간의 관련성을 해명하는 지식의 포토스라 할 영역을 조망하자고 한다.

유럽과 아시아라는 이항구조를 넘어서서 유럽과 아시아, 서양과 동양의 연계성 속에서 보자는 것은 어쩌면 글로벌 세계의 전개에 따른 미국 지역연구에 숨어 있는 인간의 감정이 배제된 정책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객관적 기술 스타일 즉 지역연구로서의 아시아학에 숨어 있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수있다는 비판도 있다.

일본의 중국연구는 본래 자기와 타자의 관계란 다층적이고 유동적이다. 재생산되는 ‘일본’이라는 주체의 위치에 끊임없이 물음을 제기하면서 복수적인 ‘우리들’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은 중국(아시아)라는 인식의 창을 통해 ‘현대 일본사상의 탈주체화’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양일모, 49쪽)

『讀書』잡지에 중국학은 이미 세계적으로 성숙한 학문이나 중국의 반응은 매우 미약하고 중국 학문의 서구에 대한 발신도 소홀히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타났다.<sup>105)</sup> 苏炜는 1987년 미국 방문을 통해 당시 미국의 한학에 대한 실제적 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sup>106)</sup> 1994년 독서의 편집인 왕후이가 일본의 미조구치沟口雄三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일본학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 중국을 연구하던 것에서 벗어나 인류보편성의 입장에서 다원성의 시각에서 중국을 연구한다고 밝혔다. 중국문명만을 연구하는 미국 콜럼비아 학파의 방식이 아닌 보편성의 시각에서 도출된 특수성이 더 요구된다고 주장했다.<sup>107)</sup>

거자오광(葛兆光)은 ‘주변에서 본 중국(중주변간중국)’을 주장하였다.<sup>108)</sup> 역사적 관점에서 그는 중국의 자아인식을 중심으로 중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면서 1단계는 자아 중심적 상상시대 즉 자기를 비춰볼 타자라는 거울이 하나도 없는 시대를 거쳐 제 2단계 하나의 거울만이 있는 시대 즉 거대한 타자인 서구가 존재하는 시대를 통과한 뒤 제 3단계인 다양한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시대로 들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주변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타자의 중국인식으로부터 과거와 오늘의 중국을 다시 보는 일이 중요해 졌다고 주장한다. 주변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그가 생각하는 주변은 지리적 의미의 주변국가라는 공간적 의미이지 그 내부의 위계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까지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푸스니엔의 과학적 동방학의 정통을 오늘날 중국에 다시 세우자는 입장과 유사하다.<sup>109)</sup> 민족국가로서의 중국이라는 입장에 서있다. 그러므로 민족국가의 입장에서 서구나 주변국가의

105) 忻剑飞, 重视国外“中国学”, 读书, 1985年07期

106) 苏炜, 有感于美国的中国学研究, 读书, 1987年02期 - 재분석

107) 沟口雄三: 汪晖, 没有中国的中国学, 读书, 1994年04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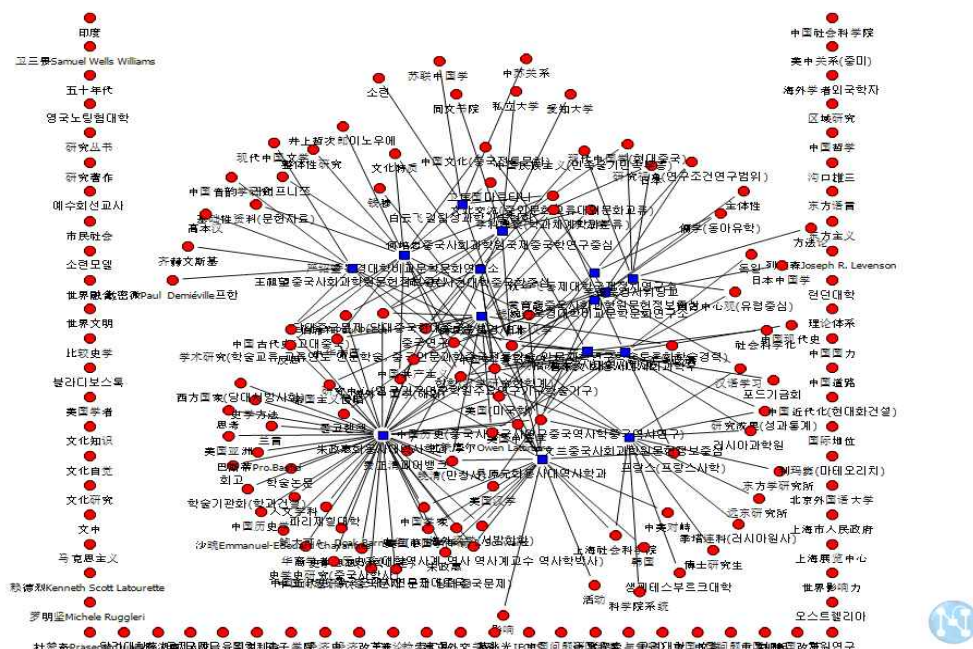
108) 葛兆光,《重建关于“中国”的历史论述》,《二十一世纪》, 2005 年8 月: 葛兆光,海外中国学本质上是“外国学”[ EB/ OL] .中国网(2008-10-10).china .com .cn.- 찾아볼 것

109)백영서, 중국학의 궤적과 비판적 중국연구-한국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제 80집, 597-9.

국가적 차원의 중국학에 대한 관심과 비판적 연구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일본의 중국학에 대해서는 1995부터 학자와 방법론의 소개 및 문헌관련 소개로 시작되었고  
경도학파와 동경학파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거나 나이토 고난에 대한 연구도 있다.<sup>110)</sup>  
미조구치의 의견에 따라 일본의 중국학연구의 상황을 정리하기도 했다.<sup>111)</sup> 청말 이래 일본의  
중국학연구에도 관심이 지속되었다.<sup>112)</sup>

### 3. 주제어로 보는 연구자와 연구자집단의 네트워크

<그림 > <주제어와 저자간의 네트워크><sup>1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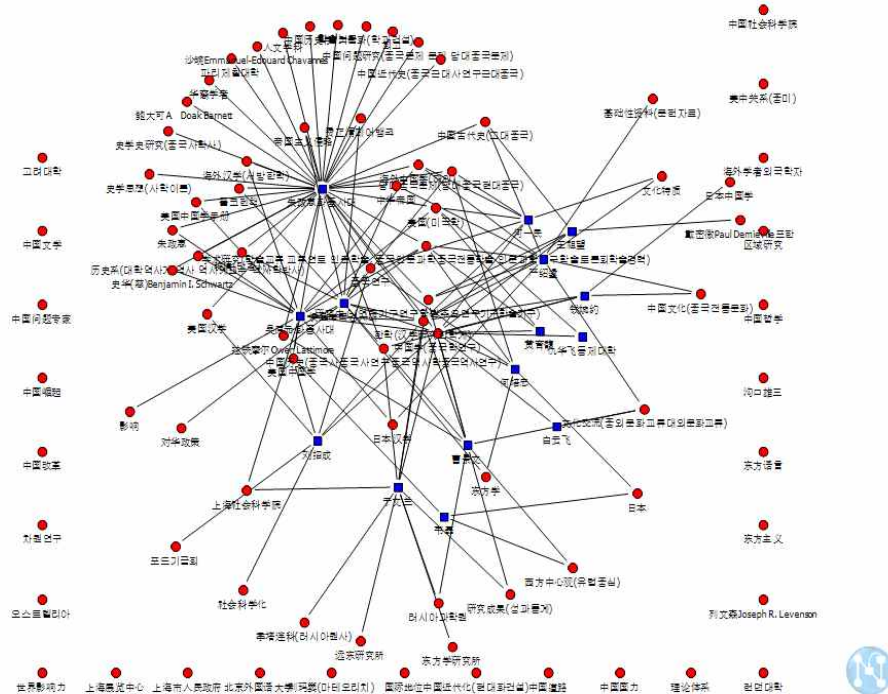
110) 刘起, 悼念日本的中国学权威平冈武夫先生, 中国史研究动态, 1995年08期 ;张惠才, 关于中国学的方法论, 当代中国史研究, 1996年05期 ;冯天瑜(武汉大学历史系), 日本“中国学”的启示——访问爱知大学有感, 江汉论坛, 1996年10期 ;郎燕珂, 日本的中国学文献索引初探, 北京图书馆馆刊, 1996年01期 ;日本中国学京都学派, 文史知识, 2001年02期 ;钱婉约(북경어언대학), 日本近代中国学的重要学者——内藤湖南, 国际汉学, 2003年01期 ;周桂钿(北京师范大学价值与文化研究中心), 日本的中国学研究, 哲学动态, 2004年01期 ;钱婉约, 论桑原隲藏的中国学, 国际汉学, 2004年02期

111) 石之瑜 ; 李圭之 ; 曾倚萃, 日本近代中国学:知识可否解放身份, 中国社会科学, 2007年01期 ;严家炎, 战后日本“中国学”的引领者和见证人——沉痛悼念丸山昇先生, 鲁迅研究月刊, 2007年02期 ;史艳玲 ; 张如意(河北大学外国语学院), 日本中国学研究的新视角——当代汉学家沟口雄三的中国学研究, 河北大学学报, 2008年05期

112) 杨际开, 日本近代中国学的问题意识与方法探析, 杭州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9年01期 ;杨合林(호남사범대), 日本中国学研究之观感, 佛山科学技术学院学报(社会科学版), 2010年02期 ;邱文科, 方法与立场:桑原中国学的特征, 国际汉学, 2010年01期 ;何培忠, 日本的当代中国研究与对海外中国学研究的思考, 国外社会科学, 2014年05期 ;韦磊, “二战”前日本现代中国学的生成动因分析, 东疆学刊, 2014年02期 (국가사회기금)

113) 출현빈도가 2회이상인 키워드와 2회이상 관련논문을 작성한 저자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를 분석

<그림 > 주요주제어와 저자간 네트워크<sup>114)</sup>



주제어로 보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구자간의 긴밀한 상호관계가 긴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로 역사적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 IV. 맺음말

중국의 중국학에 대한 연구는 기관과 연구자간의 네트워크나 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관심과 영역도 비교적 고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학술적 연구보다는 정책적 목적이 두드러지는 경향도 나타나고 중국의 문화역량의 대외적 확산이라는 것으로 서구중심의 중국학을 대체하고자 하는 조직적 학술적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래 서구학문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수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은 학문의 세계화에 따른 중국내의 수용과 반응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중심주의적 중국학에 대한 중국중심주의적 중국학 즉 본토중국학의 담론과 조직적 대응이 해외중국학 연구에 나타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114) 3회이상 출현한 주제어로 분석

데이비드 스잔톤(David Szanton), 『지식의 정치: 지역학과 분과학문』, 2004.

민병희, 「근대 학술체계에서의 동아시아 人文傳統에 대한 접근 방식과 “中國學”」, 『중국학보』 제 71집.2015.

슐레스키, 로널드(Ronald Suleski), 김성규 옮김. 『하버드대학의 동아시아연구』. 현학사,2008.

윌러스틴, 이매뉴얼, 「의도하지 않은 결과: 냉전시대 지역연구」. 노엄 촘스키 외. 『냉전과 대학』. 당대, 2001.

채오병, 「냉전과 지역학－ 미국의 헤게모니 프로젝트와 그 파열1945-1996,」, 『사회와역사』 2014-12

葛兆光, 『宅茲中國－『重建有關‘中國’的歷史論述』, 中華書局, 2011.

朱政惠,崔丕主編, 『北美中国学的历史与现状』, 上海辞书出版社, 2013.

何培忠主編, 国际视野中的中国研究——历史与现在』,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3.

Author Ramon H. Myers, Thomas A. Metzger, Sinological Shadows: The State of Modern China Studies in the U.S., *Journal Th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Issue*, 1980

Brian Hook, Kuan Hsin-chi, Gilbert Rozman, Tony Saich, Tanaka Kyoko, Jonathan Unger, Ezra F. Vogel Author David Shambaugh,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China Studies by Lucien Bianco, *Journal The China Quarterly Issue* 143 Date Sep., 1995

Fogel, Joshua(2013), “The Cold War and China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 別冊

Marc Bleche, Structure and Agency, Intellectual "Nationalism," and Method: Tang Tsou's Contributions to China Studies and Social Science , *Journal Modern China* Volume 26 Issue 2 2000

Richard Louis Edmonds, "The China Quarterly" in an Era of Transitions, 1996-2002, *Journal The China Quarterly Issue* 200 2009

Richard Madsen, The Public Sphere, Civil Society and Moral Community: A Research Agenda for Contemporary China Studies, *Journal Modern China Volume* 19 Issue 2 Date Apr., 1993

Stuart R. Schram, Some Reflections on the Pfeffer-Walder "Revolution" in China Studies , *Journal Modern China Volume* 3 Issue 2 1977

Walder, Andrew(2004), “The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China Studies, 1977-2002.” in David Szanton ed. *The Politics of Knowledge: Area Studies and the Discipline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